

특허 10개 출원한 25세 KAIST 박사

이슬기 씨 'EU 공학硏'서 연구

올해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를 딴 여성 과학자가 유럽연합(EU) 유명 연구소로 진출해 화제다. 24일 졸업한 이슬기 씨(25·사진)는 다음달부터 네덜란드 바이오메디컬 전자공학연구소 IMEC-NL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이곳은 저전력 생체신호 검출 및 처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이씨는



2004년 이 학교 전기및전자공학부에 입학해 학부 3년, 대학원 5년 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학회에서 11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5개의 논문을 관련 저널에 실었다. 관련 특허도 10개나 출원했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원 과정 동안 세계적 학회에 이렇게 많은 논문을 내는 것은 KAIST 안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기자 ihs@hankyung.com